

## 흉강경을 이용한 폐기포절제수술과 동시에 시행한 Doxycycline Pleurodesis의 효과

이대목동병원 흉부외과

김 광 호 · 김 형 국 · 한 재 열 · 김 정 택\*

기흉환자에서 흉강경을 이용한 폐기포절제술시 치료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절제술과 동시에 약물을 이용한 화학적 늑막유착술을 실시하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종종 사용되고 있다. 본 교실에서는 화학적 늑막유착술의 확실한 치료효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현재 사용가능한 제제인 Doxycycline으로 흉강경폐기포절제술과 동시에 늑막유착술을 실시한 21예와 늑막유착술을 실시하지 않은 20예를 비교 관찰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수술후 Doxycycline 투여군과 비투여군 모두 완전한 폐의 재팽창이 있었으며 모두 흉관을 제거할 수 있었다.
2. 수술후 흉강삼관기간은 Doxycycline 투여군이 비투여군보다 길었으나 통계학적 의의는 없었다 ( $P > 0.05$ ).
3. 수술후 3일째 흉관을 통한 배액량이 하루 100ml 이상된 환자는 Doxycycline 투여군이 비투여군보다 많았고 통계학적 의의가 있었다 ( $P < 0.05$ ).
4. 수술후 발열은 Doxycycline 투여군과 비투여군에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 $P > 0.05$ ).
5. 수술후 진통제 투여량은 Doxycycline 투여군에서 비투여군보다 많은 양을 필요로 하였으나 통계학적 의의는 없었다 ( $P > 0.05$ ).

이상의 결과에서 기흉환자의 폐기포절제술후 Doxycycline을 이용한 늑막유착술은 재발율을 낮추거나 술후 공기누출을 감소 시킨다는 소견은 보이지 않았으며 오히려 술후 많은 진통제 투여량을 필요로 했고 흉수량의 증가소견을 보였다. 그러므로 흉강경 폐기포절제시 화학적 늑막유착술의 사용은 사용하지 않은 군에 비해 큰 장점이 없다고 생각된다.

\* 연세대학교병원